

욕망 조절을 위한 순자의 사회규범론

黃鎬植*

<목 차>

1. 머리말
2. 순자의 인간관 및 욕망론
 - 2.1 욕망을 타고난 인간
 - 2.2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
 - 2.3 무제한적인 욕망 충족 경향성과 제한적인 욕망 충족 수단
3. 욕망 충족 및 조절을 위한 사회규범
 - 3.1 사회규범의 필요성
 - 3.2 바람직한 욕망 충족 및 조절 원리로서 '예'
4. 맺음말

1. 머리말

오랜 중국철학의 역사에서 욕망은 주로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욕망은 중국철학사에서 핵심 범주로 자리를 잡지 못하였고, 도(道)나 심(心)·성(性)·리(理)·기(氣)와 같은 범주들에 딸려 부수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또 욕망은 실제 내용 면에서도 제거되거나 억제되고 절제되어야 할 부정적인 경향을 지닌 것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성리학에서 천명된,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없애라”(存天理, 去人欲)는 명제가 보여주듯이, 사실상 욕망에 대한 논의는 질식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명·청대에 이르러 이지(李贄)와 대진(戴震) 등

* 고려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수료.

에 의해 욕망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새롭게 대두되기도 하였지만, 근대 이전까지 욕망에 대한 논의는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필자가 보기에, 전국시대에 살았던 순자는 드물게도 인간이 지닌 욕망을 철학적 근본 주제로 설정하여 욕망에 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제시한 철학자이다. 순자는 당시 극심하던 사회적 분쟁과 혼란 상황을 인간이 지닌 욕망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 이를 잘 다스려 나가지 못하는 데서 비롯하는 문제라고 파악하였으며, 욕망을 타고난 인성으로 뚜렷이 위치 지움으로써 욕망 긍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닦았다. 이 점에서 순자의 철학은 욕망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이라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현대의 중국철학사자들 역시 “순자에 이르러서 욕망에 관한 정밀하고 상세한 이론이 성립되어 욕망의 절제 또는 욕망의 올바른 인도에 관한 하나의 주도면밀한 주장이 이루어진다.”¹⁾고 평하기도 하고, 순자는 “예절(도덕규범)과 욕구(정욕)와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연구했다. 그의 윤리사상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된 것이다.”²⁾고 평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순자의 욕망 이론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게 이루어져왔다. 순자의 욕망에 관한 학설을 다루는 경우라도 협소한 주제를 설정하여 접근하는 경향이 다분하였다. 특히 순자의 욕망 개념을 주로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성악설과 연관 지어 탐구하다 보니, 순자의 욕망 이론이 제대로 조명되기보다는 욕망이 지닌 부정적 측면만 부각되는 문제도 적지 않았다. 그리 많지 않은 연구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짐에 따라 순자의 욕망에 관한 철학은 아직 체계적인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욕망과 사회규범 사이의 관계 문제는 철학사학자들에 의해 소략하게 언급되고 있을 뿐 아직 본격적인 연구 성과를 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금 말했듯이, 이 글에서는 《순자》에서 보이는 욕망과 사회규범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순자의 철학에서 욕망 이론이나 사회규범 이

1) 張岱年, 《中國哲學大綱: 中國哲學問題史》下, 김백희 옮김(까치, 1998), 880쪽.

2) 朱伯崑, 《중국고대윤리학》, 전명용 외 옮김(이론과실천, 1990), 142-143쪽.

론은 모두 그 체계가 방대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주로 욕망으로부터 사회규범이 이끌어지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크게 두 주제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한다. 먼저 순자의 인간관과 욕망론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규정되고, 인간 속에서 욕망은 어떠한 위상과 특성을 지니며, 인간의 욕망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이어서 욕망이 인간의 사회적 삶과 어떤 영향 관계에 놓이는지, 그리고 욕망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바람직한 사회규범의 원리는 어떠한지 하는지를 검토해본다.

2. 순자의 인간관 및 욕망론

2.1 욕망을 타고난 인간

순자는 ‘성악설’이라는 독특한 인성론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순자가 ‘사람의 성(性)이 악하다’고 단언한 배경에는 특유의 욕망관이 자리하고 있다. 순자는 욕망³⁾을 인성(人性) 속에 뚜렷이 위치 지음으로써 인간의 욕망에 보편적인 본유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순자의 욕망관은 성(性)과 정(情), 욕망(欲)을 모두 마음의 사려가 더해지기 이전 단계에 놓인 자연적 인성으로 규정하는 데서 비롯한다.

성이란 천(天)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정이란 성의 본바탕(실질)을 이루는 것이며, 욕망이란 정이 외물에 감응하여 나온 것이다.⁴⁾

3) 《荀子》에는 ‘欲望’이란 어휘가 보이지 않는다. 대신 ‘欲’이란 낱말이 사용되고 있다. 현대적인 용법에 따르면, ‘欲求’와 ‘欲望’을 구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기 보존에 필요한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생리·심리적 필요(need/demand)는 ‘欲求’로,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欲求를 넘어서는 잉여적 갈망(desire/craving)은 ‘欲望’으로 개념화한다. 하지만 《荀子》에서 등장하는 ‘欲’에 이 같은 현대적 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난점이 따른다. 순자는 ‘欲’과 ‘求’를 구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단 ‘欲’을 일괄하여 ‘욕망’으로 풀이한다.

(사람이) 생겨날 때 타고난 그대로의 것을 ‘성’이라고 한다. (사람이) 태어나며 생겨난 조화로운 기(氣)가 정교하게 합하여 감응함으로써 그렇게 하려고 일삼지 않아도 저절로 그러한 것을 ‘성’이라고 한다. 성으로 지닌 좋아하고 미워하며, 기뻐하고 분노하며,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리켜 ‘정’이라고 한다. 이 정이 (외물에 감응하여) 저절로 드러난 (욕망) 가운데 마음이 [욕망 추구의 가부(可否)를] 가려내는 것을 ‘사려’라고 한다.⁵⁾

순자에게 인성이란 천(天)으로부터 주어진 자연성과 그 자연스러운 표현 상태를 총칭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성은 사람이 태어나며 부여받은 신체가 지닌 생리·심리적 경향성을 의미하고, 그 본바탕은 여섯 가지 타고난 정이며,⁶⁾ 이 정이 외물과 감응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욕망이다. 사실상 성은 그 실질인 정과 따로 구별되기 어렵기 때문에,⁷⁾ “인성은 외물에 감응하여 욕망으로 드러나는 정으로 이루어진다.”⁸⁾고 할 수 있다. 인성을 이루는 정의 자연스런 발현 상태가 욕망인 점에서 욕망은 자연적 인성이다.⁹⁾

이러한 인성론에 따를 때, 사람은 욕망을 타고난 존재이다. ‘타고난 것’(生)으로 성(性)을 규정하는 순자의 관점에서, 한 생명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생명 유지를 위한 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 욕망이다. 그래서 순자는 생명과 욕망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 4) 《荀子》<正名>: “性者, 天之就也; 情者, 性之質也; 欲者, 情之應也.” 이하 《荀子》에서 인용하는 경우 서명은 생략하고 편명만 제시한다.
- 5) <正名>: “生之所以然者謂之性. 性之和所生, 精合感應, 不事而自然謂之性. 性之好·惡·喜·怒·哀·樂謂之情. 情然而心爲之擇謂之慮.” 王先謙은 이 구절 가운데 ‘性之和所生’의 ‘性’을 ‘生’으로 바로잡고 있다. 여기서는 이 견해에 따라 풀이한다. 王先謙, 《荀子集解》(北京: 中華書局, 1988), 412쪽 참조.
- 6) <天論>: “天職既立, 天功既成, 形具而神生. 好惡喜怒哀樂臧焉, 夫是之謂天情.”
- 7) D. C. Lau는 《荀子》에서 정은 성의 내용으로 일컬어지지만, 단지 형식상으로만 정의된 기술적인 용어여서 성과 연결된 제2의 실재로 자리매김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Theories of Human Nature in *Mencius and Xunzi*,” ed. by T. C. Kline III and Philip J. Ivanhoe, *Virtue, Nature, and Moral Agency in the Xunzi*(Indianapolis, Indiana: Hackett Publishing Company, 2000), pp.190-191 참조.
- 8) D. C. Lau, 위 논문, p.205.
- 9) 타고난 자연성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성과 정, 욕망은 동일한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그래서 순자는 대체로 성과 정, 욕망을 혼용하고 있다. 蔡仁厚 역시 이런 순자의 人性 개념에 주목하여 “사실상 순자는 본성(性)·감정(情)·욕구(欲)를 모두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고 주장한다(《순자의 철학》, 천병돈 옮김(서울: 예문서원, 2000), 71쪽).

욕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 부류가 다른 것이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치/란의 문제가 아니다.¹⁰⁾

생명의 유/무는 욕망의 유/무와 직결된다. 욕망이 있는 것은 생명을 지닌 것인 반면, 욕망이 없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타고난 욕망은 생명 유지를 위한 원동력이다. 그래서 순자는 “사람이 지닌 가장 강렬한 욕망은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이다.”고 말한다.¹¹⁾ 이처럼 사람은 생명을 부여받는 순간부터 자신의 생명을 유지시켜가고자 하는 자기보존의 욕망을 지닌다. 이렇게 근본적인 자기보존 욕망에 따라 사람에게에는 생리·심리적 욕망이 자연적으로 갖춰져 있다.

사람은 모두 동일한 욕망을 지닌다. (누구나) 배고프면 먹고 싶어 하고, 추우면 따뜻하게 입고 싶어 하고, 피곤하면 쉬고 싶어 하며, (자신의 생존에) 이로운 것을 좋아하고 해로운 것을 싫어한다. 이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지닌 것이며, (후천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그러한 것이다.¹²⁾

사람의 성은 배고프면 배부르게 먹고자 하고, 추우면 따뜻하게 입고자 하며, 피곤하면 쉬고자 한다. 이것이 사람의 정이고 성이다.¹³⁾

사람의 정이란 눈으로는 아름다운 빛깔을 보고자 하고, 귀로는 좋은 소리를 듣고자 하며, 입으로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고, 코로는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자 하며, 마음으로는 편안하고자 한다. 이 다섯 가지 욕망은 사람의 정에서 없을 수 없는 것이다.¹⁴⁾

10) <正名>: “有欲無欲, 異類也, 生死也, 非治亂也.” 王先謙은 王念孫의 지적에 따라 이 구절 가운데 ‘生死也’를 ‘性之具也’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校釋하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살아 있는 것과 죽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라는 풀이가 ‘태어나면서 갖춰진 성이므로’라는 말로 바뀐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가 지닌 것이 욕망이다’는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 《荀子集解》, 427쪽 참조.

11) <正名>: “人之所欲, 生甚矣, 人之所惡, 死甚矣.”

12) <榮辱>: “凡人有所一同: 飢而欲食, 寒而欲煖, 勞而欲息, 好利而惡害, 是人之所生而有也, 是無待而然者也.”

13) <性惡>: “今人之性, 飢而欲飽, 寒而欲煖, 勞而欲休, 此人之情性也.”

14) <王霸>: “夫人之情, 目欲綦色, 耳欲綦聲, 口欲綦味, 鼻欲綦臭, 心欲綦佚. 此五綦者, 人情之所必不免也.”

사람은 어느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유지시켜갈 수 있도록 ‘자기 생존에 이로운 것을 좋아하고 해로운 것을 싫어하는’ 성향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이·목·구·비(耳·目·口·鼻)의 감각적 본능에서 비롯하는 식·색·성·향(食·色·聲·香)에 대한 생리적 욕망과 안일(安佚)을 추구하는 심리적 욕망을 타고난다. 이 욕망은 성과 같이 타고난 것이라는 점에서 사람이 의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삼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¹⁵⁾ 따라서 자기보존을 위한 생리·심리적 욕망은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망이어서 인위적으로 없앨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충족시켜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¹⁶⁾ 다시 말해서 사람이 타고난 욕망은 본유적인 것이어서 신분이 가장 비천한 문지기에게서조차 욕망을 없애버릴 수 없다.¹⁷⁾

2.2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

순자는 사람을 본유적 욕망을 지닌 존재로 규정하는 동시에 사회적 존재로 이해한다. 사람은 자기보존을 위해 필수적인 생리·심리적인 욕망을 타고났으나, 자기 홀로 그러한 욕망을 충족시켜갈 수 있을 만큼 자족적인 능력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사람은 자기 밖에 존재하는 만물을 이용하여 타고난 욕망을 충족시켜가며 생명을 유지해나간다. 이러한 욕망 충족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는 능력에서 사람은 다른 존재에 비해 생래적으로 취약하고 무력하다. 따라서 사람은 홀로 고립되어 살아갈 수 없다.

사람이 타고난 힘은 소보다 못하고 달리기는 말보다 못하다..... 사람은 홀로 뿔뿔이 흩어져서는 허약해지고, 허약하면 만물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어서 거처를 마련하여 삶을 영위해나갈 수 없을 것이다.¹⁸⁾

15) <性惡>: “凡性者, 天之就也, 不可學, 不可事; 不可學·不可事而在人者謂之性.”

16) <禮論>: “人生而有欲, 欲而不得, 則不能無求.”; <正名>: “以所欲爲可得而求之, 情之所必不免也.”

17) <正名>: “故雖爲守門, 欲不可去, 性之具也.”

사람에게 가장 강렬한 것으로 주어진 욕망, 즉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싫어하는 자기보존 욕망에 따라 자신의 생명을 존속시켜나가자면 홀로 살아가는 삶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지 않을 수 없도록 조건 지워진 존재이다. 사람은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야만 타고난 욕망을 충족시킬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 사회를 이루어 서로 협력하며 힘을 키워나가야만 만물을 이용하여 욕망을 충족시켜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협력하며 살아가는 사회는 사람이 타고난 욕망을 충족시켜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사람이 타고난 힘은 소보다 못하고 달리기는 말보다 못하다. 그런데도 사람이 소와 말을 부린다. 어째서 그러한가? 답하자면, 사람은 사회(群)를 이룰 수 있지만, 소와 말은 사회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화합하여 하나로 뭉치면 힘이 세져서 강해질 수 있고, 강해지면 만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야 사람들은 집을 지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나면서부터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¹⁹⁾

(장인들이) 온갖 기예로 만들어내는 것은 한 사람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온갖 기예를 다 지닐 수 없고, 한 사람이 모든 관직을 다 겸할 수 없다. 뿔뿔이 흩어져 살며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곤궁해질 것이다.²⁰⁾

이처럼 사회적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은 사회 안에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나간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간은 자기보존 욕망에서 비롯하는 ‘자신의 생존에 이로운 것을 좋아하고 해로운 것을 싫어하는’ 성향에 따라 생리·심리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단을 추구해나간다. 이렇게 타고난 욕망을 사회를 통해 충족시켜가는 과정에서 인간은 자기가 소속된 사회에 갖춰진 사회적 가치체계의 지배적 영향 아래 놓인다. 그에 따라 자신의 사회적 생존에 더 유리한

18) <王制>: “力不若牛, 走不若馬.…… 離則弱, 弱則不能勝物, 故宮室不可得而居也.”

19) <王制>: “力不若牛, 走不若馬, 而牛馬爲用, 何也. 曰, 人能羣, 彼不能羣也.…… 和則一, 一則多力, 多力則彊, 彊則勝物, 故宮室可得而居也.…… 故人生不能無羣.”

20) <富國>: “故百技所成, 所以養一人也. 而能不能兼技, 人不能兼官, 離居不相得則窮.”

사회적 가치를 좋아하고 불리한 사회적 가치를 싫어하는 사회적 욕망이 형성된다. 《순자》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욕망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로서 부와 귀, 명예, 지식, 아름다움(美) 등이 제시되고 있다.

얇은 것은 두텁기를 원하고, 추한 것은 아름답기를 원하며, 좁은 것은 넓어지기를 원하고, 가난한 자는 부유하기를 원하며, 비천한 자는 존귀해지기를 원한다.²¹⁾

나는 미천한 사람이어서 존귀한 사람이 되고 싶고,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고, 가난한 사람이어서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 까요?²²⁾

영예로운 것을 좋아하고 모욕당하는 것을 싫어하며, 이로운 것을 좋아하고 해로운 것을 싫어하는 욕망은 군자나 소인이나 모두 마찬가지다.²³⁾

사회적 삶에 이로운 사회적 가치로서 부와 귀, 명예, 지식, 아름다움 등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욕망은 군자든 소인이든 공유하는 것이다. 이 사회적 욕망은 비록 사회적 삶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지만, ‘자신의 생존에 이로운 것을 좋아하고 해로운 것을 싫어하는’ 성향에 바탕을 둔 욕망이라는 점에서 자연적인 자기보존을 위한 생리·심리적 욕망이 사회적인 형태로 전이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본유적 욕망과 사회적 욕망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며, 사회적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본유적 욕망의 충족은 사실상 사회적 욕망의 충족 정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사회를 통해서만 욕망 충족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 욕망을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본유적 욕망의 충족 정도가 좌우되는 것이다.

21) <性惡>: “夫薄願厚, 惡願美, 狹願廣, 貧願富, 賤願貴.”

22) <儒效>: “我欲賤而貴, 愚而智, 貧而富, 可乎?”

23) <榮辱>: “好榮惡辱, 好利惡害, 是君子小人之所同也.”

2.3 무제한적인 욕망 충족 경향성과 제한적인 욕망 충족 수단

앞서 살펴본 대로, 인간은 욕망을 타고난 사회적 존재이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나가기 위한 원동력으로서 자기보존을 위한 생리·심리적 욕망을 타고나며, 생명이 유지되는 한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이 본유적 욕망을 끊임없이 충족시켜가고자 한다. 본유적 욕망의 소멸은 곧 죽음을 뜻하기 때문이다.²⁴⁾ 또한 인간은 사회적 욕망도 지닌다. 사회적 욕망은 본유적 욕망이 사회적으로 전이된 것이어서, 사회적 욕망의 충족 정도에 따라 생리·심리적 욕망의 충족 정도가 결정된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사회적 삶에 이로운 사회적 가치 중에서 자신에게 결여된 사회적 가치를 부단히 충족시켜가기를 바란다.²⁵⁾

이처럼 인간의 욕망은 질적으로도 한없이 더 좋은 것을 바라고 양적으로도 끝없이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경향성을 지닌다. 왜냐하면 욕망은 정(情)에서 비롯하는 것이어서 그 충족 가능성과 상관없이 발동하기 때문이다.²⁶⁾

사람의 정은 음식을 먹을 때는 쇠고기나 돼지고기와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옷을 입을 때는 아름다운 무늬가 수놓아진 비단옷을 입고 싶어 하고, 행차할 때는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싶어 하고, 또 쓰고 남은 재물을 쌓아가면서 그것이 풍부해지기를 바란다. 그러면서도 자기 생전에는 물론이고 대대손손 누린 다 해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사람의 감정이다.²⁷⁾

사람의 정이란 누구나 천자처럼 존귀해지기를 바라고, 온 세상을 다 차지할 만

24) 주 10) 참조.

25) <性惡>: “夫薄願厚, 惡願美, 狹願廣, 貧願富, 賤願貴, 苟無之中者, 必求於外.” 순자는 이 구절에 이어서 “그러므로 부유하면 재물을 원하지 않고, 존귀하면 권세를 바라지 않는다. 자기에게 충족되어 있는 것이라면 밖에서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故富而不願財, 貴而不願勢, 苟有之中者, 必不及於外.)고 말한다. 이 구절은 사회적 욕망의 경우 자기가 바라는 사회적 가치를 충족시켰다면 그 충족된 가치를 더 욕망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자기에게 결여된 것을 충족시키고자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 욕망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구절이지 사회적 욕망 충족의 무제한적인 경향성을 부정하는 구절이 아니다.

26) <正名>: “欲不待可得, 所受乎天也.” 순자는 이런 시각에서 “욕망이 많은 것과 적은 것은 그 부류가 다른 것이다. 사람의 정에 따른 것이므로, 치/란의 문제가 아니다.”(<正名>: “欲之多寡, 異類也, 情之數也, 非治亂也.”)고 말한다.

27) <榮辱>: “人之情, 食欲有芻豢, 衣欲有文繡, 行欲有輿馬, 又欲夫餘財蓄積之富也, 然而窮年累世不知足, 是人之情也.”

큼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²⁸⁾

인간의 욕망은 생리·심리적 욕망만이 아니라 사회적 욕망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없이 충족시켜가고자 하는 경향성을 지닌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지위에 오른 천자조차도 자신의 욕망을 다 충족시킬 수 없으며, 완전한 충족 상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뿐이다.²⁹⁾

여기서 딜레마에 봉착한다. 인간이란 생명 유지를 위한 원동력으로 욕망을 타고난 존재여서 그 욕망을 충족시켜가야만 살아갈 수 있다. 또 인간은 욕망 충족을 위해서는 사회 속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한없이 충족시켜가기를 바란다. 끝없는 욕망의 충족 역시 사회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사회에서 획득할 수 있는 욕망 충족 수단은 한정되어 있다.³⁰⁾ 이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가장 존귀한 천자조차도 자신의 욕망을 다 충족시킬 수 없다.

욕망과 욕망 충족 수단 사이의 불균형 상태에서³¹⁾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욕망이 흘러가는 대로 욕망을 충족시켜가고자 한다면, 부족한 욕망 충족 수단을 둘러싸고 서로 앞 다투어 차지하려는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³²⁾ 이러한 다툼이 계속될 때 사회적 분쟁과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끝내 사회는 파국으로 다가갈 것이다. 이에 대해 순자는 <성악>편 첫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제 사람의 성이란 나면서부터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좋아한다. 이 성을 그 대로 따르기 때문에 서로 다투어 빼앗고자 하며,……. 또 [사람은] 나면서부터 [남

28) <榮辱>: “夫貴爲天子, 富有天下, 是人情之所同欲也.”

29) <正名>: “雖爲天子, 欲不可盡. 欲雖不可盡, 可以近盡也.”

30) <榮辱>: “夫貴爲天子, 富有天下, 是人情之所同欲也, 然則從人之欲則孰不能容, 物不能瞻也.”

31) 이승환은 “재화의 부족과 ‘인간의 욕망’은 정의의 요구를 발생케 하는 객관적 여건과 주관적 여건이 된다”고 한다.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27쪽.

32) 욕망 충족 수단이 부족하여 사회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은 다음 두 구절에서도 보인다. <王制>: “孰位齊而欲惡同, 物不能澹則必爭, 爭則必亂, 亂則窮矣.”; <富國>: “欲惡同物, 欲多而物寡, 寡則必爭矣.”

을) 시샘하고 미워한다. 이 정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남을 해치며,……. 또 (사람은) 나면서부터 귀와 눈이 지닌 욕망이 있어 아름다운 소리와 빛깔을 좋아한다. 이 욕망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음탕하고 문란해지며,……. 그러니 사람의 성을 그대로 따르고 사람의 정을 그대로 좇는다면, 반드시 서로 다투며 빼앗고자 하여,……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기에 딱 알맞을 것이요, 결국 포악한 상태에 이르고 말 것이다.³³⁾

성·정에서 비롯하는, 무제한적인 욕망 충족 경향성을 그대로 좇을 경우에 빚어질 사회적 혼란과 파국은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사회를 떠나 뿔뿔이 흩어지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라는 삶의 터전을 상실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단을 홀로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³⁴⁾ 결국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끝없이 만족을 추구하는 욕망의 자연적 경향성에 내맡긴 채 살아간다면, 욕망 충족의 기반인 사회 자체를 파국으로 이끌어감으로써 자기 생존조차 불가능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자는 “세상의 해악은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데서 생겨난다.”고 주장한다.³⁵⁾

3. 욕망 충족 및 조절을 위한 사회규범

3.1 사회규범의 필요성³⁶⁾

순자는 예견되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소하고자 하는가? 순자의 답변을 들

33) <性惡>: “今人之性, 生而有好利焉, 順是, 故爭奪生,……; 生而有疾惡焉, 順是, 故殘賊生,……; 生而有耳目之欲, 有好聲色焉, 順是, 故淫亂生,……. 然則從人之性, 順人之情, 必出於爭奪,……, 而歸於暴.”

34) <王制>: “爭則亂, 亂則離, 離則弱, 弱則不能勝物, 故宮室不可得而居也.”

35) <王制>: “天下害生縱欲.”

36) 이 절은 줄고, <순자의 인성론에 담긴 사회철학적 의미>, 《범한철학》 제57집(범한철학회, 2010), 122-125쪽에 실린 내용을 이 글의 주제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어보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욕망을 지닌다. 무언가를 욕망하는 데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추구해나가지 않을 수 없다. 그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추구해나가는 데 일정한 기준(度量)과 한도(分界)를 설정하지 않으면, 서로 다투지 않을 수 없다. 서로 다투면 혼란스러워진다. 혼란하면 모두가 공멸하는 상황에 다다른다.³⁷⁾

순자는 욕망 충족을 위한 기준과 한도를 제정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일정한 욕망 충족 기준과 한도에 따라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가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이나 붕괴를 초래할 소지가 있는 무제한적인 욕망 충족 경향성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사회적 분쟁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마련된 기준과 한도에 알맞게 욕망을 충족시켜가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욕망보다 사회적 질서를 우선시하는 입장이다. 사회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보는 순자의 인간관에 비춰볼 때 당연한 귀결이다. 인간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자기를 보존해가기 위해서는 그 필수조건으로 사회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제한적인 욕망 충족 경향성이 제한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제한될 수 없는 것이라면, 욕망 충족 기준과 한도 자체가 불필요할 것이며, 그에 따라 사회적 분쟁과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순자의 성 개념과 인위(僞)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순자에 따르면, 인위란 사람이 배워서 행할 수 있고 일삼아 노력하여 이를 수 있는 것인³⁸⁾ 반면, “성이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어서 사람이 배울 수 없는 것이고, 일삼을 수 없는 것이다.”³⁹⁾ 이러한 정의에 따를 때, 성은 인위에 의해 변화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성이 인위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면, 성에서 비롯하는 무제한적인 욕망

37) <禮論>: “人生而有欲, 欲而不得, 則不能無求; 求而無度量分界, 則不能不爭; 爭則亂, 亂則窮.”

38) <性惡>: “可學而能·可事而成之在人者謂之僞.”

39) <性惡>: “凡性者, 天之就也, 不可學, 不可事.”

충족 경향성 역시 '욕망 충족 기준과 한도'에 의한 인위적 개입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순자는 악한 성이 인위에 의해 선하게 바로잡힐 수 있다고 누누이 역설한다.⁴⁰⁾ 성이 인위적으로 교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⁴¹⁾ 이는 무제한적인 욕망 충족 경향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이다. 어떻게 가능한가?

순자는 "성이란 원시 상태 그대로 소박한 재질이다"⁴²⁾는 말로 또 다른 성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 성이란 아직 사람의 손길을 타지 않은 자연 상태의 재질과도 같다. 그리하여 도공과 목수가 자연적 재질인 찰흙이나 나무를 반죽하거나 깎아서 사람에게 유용한 기와나 목기를 만들어낼 수 있듯이,⁴³⁾ 사람의 성도 인위에 의해 개선 과정을 거치면 사회에 긍정적 효용을 가져오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 찰흙이나 나무 같은 자연적 재질 자체는 바뀔 수 없지만 인공적으로 그것의 형태와 쓸모를 기와나 목기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주어진 자연적 재질로서 성 자체는 바뀔 수 없지만 인위적으로 그 질적인 악한 상태를 선한 상태로 교화시키는 일은 가능하다.⁴⁴⁾ 마치 구부러진 나무를 곧게 만들거나 무딘 금속을 날카롭게 만들듯이,⁴⁵⁾ 치우치고 혼돈된 상태에 놓인 악한 것을 올바르게 정돈된 상태인 선한 것으로 바꾸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⁴⁶⁾ 악한 성이 선하게 교화될 수 있다면, 사회적 분쟁이나 혼란을 낳을 소지가 있는 무제한적인 욕망 충족 경향성도 제한될 수 있다. 말하자면 자연적 재질인 성과 동일한 것으로서 본유적 욕망 자체는 어찌할 수 없지만, 그것의 질적 상태에 해당하는 무제한적인 욕망 충족 경향성은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⁴⁷⁾

40) <性惡>: "人之性惡, 其善者僞也."

41) 聖인이 그 본보기이다. <性惡>: "故聖人化性而起僞."

42) <禮論>: "性者, 本始材朴也."

43) <性惡>: "故陶人埴埴而爲器, 然則器生於工人之僞, 非故生於人之性也. 故工人斲木而成器, 然則器生於工人之僞, 非故生於人之性也."

44) <儒效>: "性也者, 吾所不能爲也, 然而可化也."

45) <性惡>: "故枸木必將待槩栝·烝·矯然後直, 鈍金必將待礪·厲然後利."

46) <性惡>: "凡古今天下之所謂善者, 正理平治也; 所謂惡者, 偏險悖亂也. 是善惡之分也已."

47) 순자는 '욕망'(欲)과 '욕망 충족을 위한 추구'(求)를 개념적으로 구분한다. '욕망' 자체는 타고난 것이어서 충족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지만, '욕망 충족을 위한 추구'는 마음의 사려를 통해 그 정당성(可否) 여부를 가려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正名>: "欲不待可得,

그러면 무제한적인 욕망 충족 경향성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순자에 따르면, 인간의 성에는 무제한적인 욕망 충족 경향성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도덕적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다. 선의지 같은 자발적인 도덕적 동기가 자연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순자는 일정한 욕망 충족 기준과 한도, 즉 사회규범이라는 인위적이고 객관적인 표준을 설정하여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를 지켜가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치 구부러진 나무를 곧은 상태로 변화시키려면 인위적으로 만든 교정목이 필요하듯이, 인간의 욕망이 지닌 무제한적인 충족 경향성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사회규범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⁴⁸⁾

3.2 바람직한 욕망 충족 및 조절 원리로서 ‘예’

이제 사회규범의 적절성 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된다. 순자에게 바람직한 사회규범은 무엇보다도 사회규범이 요청되는 상황, 즉 욕망과 욕망 충족 수단 사이에 빚어지는 불균형 상태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벌이는 욕망 충족을 위한 분쟁과 사회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자면 사회 구성원들이 타고난 욕망을 최고도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인 동시에 무제한적인 욕망 충족 경향성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조화로운 사회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순자는 이러한 요건들을 구비한 사회규범으로 유가적 성인이 제정한 ‘예’(禮)를 제시한다.

예는 어디서 생겨났는가?..... (순자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선왕은 혼

所受乎天也, 求者從所可, 所受乎心也.”) 따라서 ‘욕망’은 없앨 수 없는 것이지만, ‘욕망 충족을 위한 추구’는 조절될 수 있는 것이다.(〈正名〉: “欲雖不可去, 求可節也.”)

48) <儒效>: “注錯習俗, 所以化性也.”

란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예의를 제정하여 분별함으로써 사람들의 욕망을 길러주고 충족시켜 주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욕망이 재화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곤궁해지지 않도록 이끄는 한편 재화가 욕망의 과다로 인해 소진되지 않도록 이끌었다. 그리하여 욕망과 재화가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자라나도록 하였다. 이것이 예의 기원이다.⁴⁹⁾

예의는 욕망과 욕망 충족 수단 사이에 조화로운 균형 관계를 유지해주는 사회규범이다. 이 균형은 한없이 만족을 추구하는 욕망이 과다한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욕망을 조절하는 동시에 욕망 충족 수단인 재화가 욕망보다 부족한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재화를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유지된다. 그리하여 예의는 사회규범을 필요로 하는 조건이었던 욕망과 욕망 충족 수단 사이에 놓인 불균형 관계를 균형 관계로 돌려놓음으로써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벌어질 욕망 충족을 위한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해소시켜버린다. 나아가 욕망 조절과 재화 공급이 상승 작용하는 관계에 놓임으로써 욕망을 길러가며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재화의 증식도 이루어지는 상태로 발전한다. 이처럼 욕망의 본유성을 긍정하는 가운데 무제한적인 욕망 충족의 경향성을 예의에 맞게 조절하여 충족시켜나갈 때 사회구성원들의 욕망 충족은 극대화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욕망 충족 수단인 재화 역시 증대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의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 사회 구성원들의 본유적 욕망은 온전하게 충족될 수 있고, 무제한적인 욕망 충족의 경향성은 적절하게 조절될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이 조화로운 사회적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동시에 재화가 날로 풍부해지는 부국(富國)이 실현될 수 있다.⁵⁰⁾

그러면 예는 어떻게 욕망을 조절하고 길러주며 충족시켜 주는가? 위 인용문

49) <禮論>: “禮起於何也?…… 先王惡其亂也, 故制禮義以分之, 以養人之欲, 給人之求, 使欲必不窮乎物, 物必不屈於欲, 兩者相持而長, 是禮之所起也.”

50) 이처럼 禮에 의한 養欲과 節欲의 효과를 확신하는 순자는 “예의에 들어맞는 상태를 ‘질서’(治)라고 하고, 예의에 어긋나는 상태를 ‘혼란’(亂)이라고 한다.”(<不苟>: “曰: ‘禮義之謂治, 非禮義之謂亂也’)”고 주장하며,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안락을 즐길 줄 알면서도 예의를 저버리는 사람은 마치 오래 살기를 바라면서도 자신의 목을 자르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다”고 역설한다.(<疆國>: “人知貴生樂安而棄禮義, 辟之是猶欲壽而殉頸也, 愚莫大焉.”)

에서 순자는 ‘분별(分)함으로써’라고 하였다. ‘분별’이란 무엇인가? 순자에게 ‘분별’은 귀/천, 장/유, 지/우(智/愚), 유능/무능의 구분에 따라 나뉜 사회적 가치로서 사회적 지위와 역할, 그에 따른 몫 등이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사회적 삶을 통해 형성하는 사회적 욕망의 충족 대상이다. 욕망을 타고난 인간은 이러한 분별이 전제되어야 사회적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다.⁵¹⁾ 어찌서 그러한가?

가장 존귀한 자는 천자이고, 최고 부자는 천하를 다 차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감정상 누구나 바라는 바이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좇으면, 형세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몰자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선왕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예의를 제정함으로써 귀/천의 등급과 장/유의 차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유능한 자와 무능한 자 사이에 분별을 두어 모든 사람이 각기 자신에게 알맞은 일을 맡아 저마다 합당한 자리를 얻게 하였다. 그런 뒤에 봉록을 많게 하거나 적게 하고, 두텁게 하거나 얇게 하여 알맞도록 하였다. 이것이 조화로운 사회적 삶을 위한 길이다.⁵²⁾

모든 사람의 사회적 욕망은 동일하다. 누구나 부·귀를 욕망한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충족시켜가고자 하는 욕망은 끝이 없다. 모두가 천자처럼 존귀한 지위에 오르기를 바라고 천하를 다 차지할 만큼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욕망 충족 대상인 사회적 가치는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무제한적인 충족을 추구하는 사회적 욕망과 제한적인 사회적 가치 사이에서 생기는 불균형은 한정된 사회적 가치를 서로 앞 다투어 차지하려는 싸움을 낳을 수밖에 없고, 나아가 사회적 분쟁과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적 욕망 충족을 위한 분란은 사회를 이루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제대로 ‘분별’ 짓지 않고 모여 살아가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다. 순자에 따르면, 분별이 없는 상태는 사회적 분란으로 이어지는 반면, 분별이 있는 상태는 사회적 화합을

51) <王制>: “人何以能群? 曰: 分.”

52) <榮辱>: “夫貴爲天子, 富有天下, 是人情之所同欲也, 然則從人之欲, 則勢不能容, 物不能贍也, 故先王案爲之制禮義以分之, 使有貴賤之等, 長幼之差, 知愚能不能之分, 皆使人載其事而各得其宜, 然後使懸緣多少厚薄之稱, 是夫羣居和一之道也.”

낳는다.⁵³⁾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 사회를 이루되 분별이 없으면 서로 다투고, 다투면 혼란해지며, 혼란하면 사회적 파국으로 다가갈 것이다. 그러므로 분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는 사람에게 커다란 해악이다.⁵⁴⁾

둘 다 귀하면 서로 섬길 수 없고, 둘 다 천하면 서로 부릴 수 없다.…… 권세와 지위가 가지런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동일하여 사물이 감당할 수 없으면 반드시 다투게 되고, 다투면 혼란해지고, 혼란하면 궁핍해질 것이다.⁵⁵⁾

순자가 볼 때,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는 필연적으로 분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순자는 《서경》을 인용하며 “가지런하기만 한 것은 참으로 가지런한 것이 아니다”(維齊非齊)고 강조한다. 따라서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란 분별 없는 무리생활을 분별 있는 사회생활로 전환하는 것이다. 여기서 순자는 사회적 욕망의 대상인 사회적 지위와 역할, 그에 따르는 몫 등을 분배할 때는 반드시 정당성(義)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람이 사회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분별(分)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분별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바로 의로움(義)을 알기 때문이다. 의로움을 알아 사람들을 분별 지으면 화합할 수 있고, 화합하면 하나로 뭉칠 수 있고, 하나로 뭉치면 힘이 강해질 수 있고, 힘이 강해지면 만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집을 지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계절의 질서에 따라 만물이 성장하도록 하여 온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분별과 의로움을 알기 때문이다.⁵⁶⁾

53) <王制>: “故義以分則和, 和則一, 一則多力, 多力則彊, 彊則勝物, 故宮室可得而居也.”

54) <富國>: “人之生不能無羣, 羣而無分則爭, 爭則亂, 亂則窮矣, 故無分者, 人之大害也.”

55) <王制>: “夫兩貴之不能相事兩賤之不能相使, …… 執位齊而欲惡同, 物不能澹, 則必爭, 爭則必亂, 亂則窮矣.”

56) <王制>: “人何以能羣. 曰, 分. 分何以能行. 曰, 義. 故義以分則和, 和則一, 一則多力, 多力則彊, 彊則勝物, 故宮室可得而居也. 故序四時, 裁萬物, 兼利天下, 無它故焉, 得之分義也.”

사회적 가치를 분배할 때 정당성을 갖춰야 하는 이유는 사회 구성원들 각자의 욕망과 욕망이 다름을 벌이는 욕망 충족 수단이기 때문이다. 정당성을 갖춘 분배여야 사회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고, 그럴 때 사회적 화합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성을 갖추어 사회적 가치가 공정하게 분배된 경우에는 무제한적인 욕망 충족 경향성과 제한적인 욕망 충족 수단 사이에 생기는 불균형이 해소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사회적 욕망을 충족시킨 상태여서 어느 누구도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놓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자는 천하를 봉록으로 받더라도 많다고 여기지 않으며, 어떤 자는 관문을 지키는 문지기든, 여행자 감시인이든, 야경꾼 노릇을 하든 적다고 여기지 않는다. 옛말에 이르기를 ‘들쭉날쭉하면서도 가지런하고, 굽으면서도 곧고, 가지가지이면서도 똑같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을 가리켜 인륜(人倫)이라고 한다.⁵⁷⁾

이처럼 예란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욕망하는 사회적 지위 및 역할, 그에 따르는 몫 등을 정당성을 갖추어 차등적으로 분배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욕망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사회적 질서를 바로잡아가는 규범체계이다. 그런데 예의는 왜 사회적 자위와 역할, 그에 따르는 몫과 같이 사회적 가치들을 분배하는 기준들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가? 또 욕망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충족시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예의는 무제한적인 욕망 충족 경향성과 제한적인 욕망 충족 수단 사이의 불균형 상태에서 비롯하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욕망과 욕망의 충돌 상황을 조절하기 위해서 ‘분별’이라는 욕망 충족 기준과 한도를 설정하여 사회적 욕망을 조절한다. 왜 사회적 욕망인가? 앞서 살펴본 대로,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자기보존을 위한 생리·심리적 욕망은 사회적 욕망의 형태로 전이되며,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충족시켜 가느냐에 따라 생리·심리적 욕망의 질적·양적인 충족 정도가 좌우된다. 따라서 인간의 욕망 충족 문제는 사실상 사회적 욕망을

57) <榮辱>: “故或祿天下而不自以為多, 或監門御旅, 抱關擊柝, 而不自以為寡. 故曰, 斬而齊, 枉而順, 不同而一, 夫是之謂人倫.”

어느 정도 충족시켜 가느냐 하는 문제로 모아진다. 이에 따라 사회적 욕망의 대상인 사회적 가치를 분배하는 기준과 한도가 필요한 것이며, 예의에서 이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 및 몫을 분배하는 분별 체계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예의란 사회적 욕망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에서 유가적 성인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사회적 욕망의 충족이 예의라는 도덕적 정당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고안된 사회적 가치의 분별 체계이다. 사회적 욕망의 충족 여부가 생리·심리적 욕망의 충족 여부까지 결정한다는 점에서, 예의에 정해진 분수(分守)에 맞게 사회적 욕망이 적절하게 조절된다는 것은 한 인간이 지닌 모든 욕망의 충족 방식이 도덕적 정당성을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욕망의 충족이 예의라는 도덕적 정당성에 들어맞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모든 욕망은 도덕적 정당성을 갖춘 형태로 질적인 변화를 이룬다. 이를 위해 예의는 사회적 욕망의 충족 대상인 사회적 가치들을 배분하기 위한 기준들의 체계로 구성되는 것이다. 예의는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그에 상응하는 몫을 분명하게 설정하여(明分) 그들로 하여금 각자 자신의 '분수'에 맞게 사회적 욕망을 충족시켜가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욕망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 욕망 다툼이 생겨나지 않도록 이끌어간다.

4. 맺음말

바람직한 사회규범을 모색하고 이를 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과제는 순자만이 아니라 당시 활동한 제자백가들이 모두 공유하는 관심사였다. 순자에게 바람직한 사회규범이란 욕망을 타고난 존재이자 사회적 존재인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망을 사회 속에서 조화롭게 충족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순자는 본유적인 '욕망'(欲)을 잘 길러주는 동시에 사회적 분쟁과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욕망의 무제한적 충족 경향성'(求

을 적절하게 조절해줄 수 있는 사회규범으로 유가적 예의를 제시한다. 따라서 인간은 예의에 따라 살아갈 때에만 자신의 욕망을 바르게 이끌어가며 조화로운 사회적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다.

순자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자기보존을 위한 생리·심리적인 욕망을 인성으로 타고난다. 하지만 인간은 이러한 생리·심리적인 욕망을 스스로 충족시켜갈 수 있을 만큼 자족적인 능력을 자연적으로 구비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사회를 이루어 타인과 협력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기보존의 욕망을 충족시켜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에게 이 본유적 욕망은 사회적 욕망의 형태로 전이된다. 인간은 자신이 소속된 사회에 갖춰진 부와 귀, 명예, 지식, 아름다움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체계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욕망하는 것이다. 자기보존을 위한 욕망이 끝없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시켜 가고자 하는 점에서 무제한성을 지니는 것이라면 본유적 욕망의 사회적 전이 형태인 사회적 욕망 역시 무제한적인 충족 경향성을 지닌다.

이렇게 한없는 충족 경향성을 가진 욕망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충족시켜야만 하는 인간은 문제 상황에 직면한다. 사회 속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무제한적인 욕망 충족의 경향성과 제한적인 욕망 충족 수단 사이에 생기는 불균형 상태는 한정된 사회적 가치를 둘러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경쟁을 초래한다. 이러한 경쟁이 심해질 경우 사회적 분쟁과 혼란은 피하기 어렵고, 끝내 사회적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속에서만 욕망을 충족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인간에게 욕망 충족의 기반인 사회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은 바로 욕망 충족 불가능 및 생존 불가능을 의미한다.

이러한 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해서 순자는 사회의 우선성을 택한다. 인간의 생존은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회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회적 혼란이라는 부정적인 결과, 즉 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원인으로 지목된 욕망의 무제한적인 충족 경향성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 무제한적인 욕망의 충족 경향성을 그대로 방치하는 사회는 존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한 욕망의 충족 기준과 한도, 즉 사회규범이라는 인위적 표준을 마련하여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를 지켜가도록 이끄는 방식으로 욕망의 무제한적인 충족 경향성을 제한해야 한다. 마치 구부러진 나무를 곧은 상태로 변화시키려면 인위적으로 만든 교정목이 필요하듯이, 사람이 지닌 무제한적인 욕망 충족의 경향성을 제한하려면 인위적으로 제정한 사회규범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여기서 사회규범의 적절성 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된다. 순자에게 바람직한 사회규범은 무엇보다도 사회규범이 요청되는 상황, 즉 욕망과 욕망 충족 수단 사이에 빚어지는 불균형 상태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벌이는 욕망 충족을 위한 분쟁과 사회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자면 사회 구성원들이 타고난 욕망을 최고도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인 동시에 무제한적인 욕망 충족 경향성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조화로운 사회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순자는 바람직한 사회규범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유가적 예의를 제시한다.

유가적 성인이 제정한 예의는 사회규범을 필요로 하는 조건이었던 욕망과 욕망 충족 수단 사이에 놓인 불균형 관계를 균형 관계로 돌려놓는 방식으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벌어질 욕망 충족을 위한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해소시키고자 하는 규범이다. 이를 위해 예의는 귀천(貴賤)의 등급, 장유(長幼)의 차이, 지혜로운 사람(智)과 어리석은 사람(愚)의 구분, 유능한 사람(能)과 무능한 사람(不能)의 구분에 따라 각기 그에 걸맞은 사회적 지위와 역할 및 그에 따른 각자의 몫을 명확하게 분별하는 체계를 갖는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분별 체계를 통해 무제한적인 욕망 충족의 경향성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사회적 질서도 바로잡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예의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욕망하는 사회적 가치를 정당성을 갖추어 차

등적으로 분배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욕망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사회적 질서도 바로잡아가는 규범체계이다. 순자가 보기 에, 인간은 이러한 예의에 따라 살아갈 때 사람들은 각자 자기에게 합당한 직분에 따라 일하고, 그에 알맞은 처우를 누릴 수 있다. 사회 구성원 각자가 해야 할 역할과 그에 합당한 몫을 분명하게 나누어주는 예의에 따라 각자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때 '조화로운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러한 순자의 입장에 따르면, 욕망을 타고난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예의'라는 유가적 사회규범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점에서 순자는 당시 변화하는 시대적 현실 속에서 유가적 예의질서를 재건하려는 이념적 목표와 이에 기초한 통일된 중화세계를 건립하고자 하는 정치적 지향을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순자의 욕망 이론과 사회규범 이론 속에서 특히 주목해보아야 할 점은 중국고대철학자들에게서 발견하기 어려운 순자 특유의 욕망관이다. 순자는 보편적 본유성을 지니는 자연적 인성으로 욕망을 규정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제거하거나 축소시킬 수 없는 것이 욕망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욕망을 삶의 원동력으로 긍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순자는 예의에 의해 욕망을 조절하고 조화롭게 충족시켜나가는 예치(禮治)가 이루어질 때 사회 구성원들의 욕망 충족이 극대화될 수 있는 동시에 사회의 질서도 바로잡힐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욕망 충족 수단으로서 사회적 재화 역시 증대되어 경제적 번영(富國)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피력한다.

한편, 순자는 '욕망'(欲)과 '욕망 충족을 위한 추구'(求)를 구분하여 '욕망'은 인위적인 개입이 불가능한 반면, '욕망 충족을 위한 추구'는 마음의 사려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말한다. 순자는 무제한적인 욕망 충족의 경향성을 조절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마음이 수행하는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순자의 철학에서 마음은 사려를 통해 욕망 충족을 위한 추구(求)에 대해 가부(可否)를 판단한다. 하지만 마음 자체에 판단의 기준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은 인위적인 예의를 표준으로 인식하여 그 예의에

들어맞는 욕망 추구인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역할 수행에 그친다. 이러한 마음의 기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욕망과 사회규범, 마음 사이의 상호 관계가 체계적으로 밝혀져야만 이 글에서 살펴본 순자의 욕망과 사회규범 사이의 관계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程樹德, 《論語集釋》, 北京: 中華書局, 1990.
- 朱 熹, 《四書章句集注》, 北京: 中華書局, 1983.
- 楊伯峻, 《孟子譯注》, 北京: 中華書局, 1960.
- 王先謙, 《荀子集解》, 北京: 中華書局, 1988.
- 王天海, 《荀子校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5.
- 熊公哲, 《荀子今註今譯》, 臺灣: 商務印書館, 1975.
- 白 奚, 《稷下學研究》, 北京: 三聯書店, 1998.
- 陳大齊, 《荀子學說》, 臺北: 中華文化出版事業委員會, 1954.
- 이운구 옮김, 《순자》 1·2, 한길사, 2006.
- 김승혜, 《유교의 뿌리를 찾아서》, 지식의 풍경, 2001.
- 김철운, 《순자와 인문세계》, 서광사, 2003.
- 이승환,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 張岱年, 《中國哲學大綱: 中國哲學問題史》, 김백희 옮김, 까치, 1998.
- 朱伯崑, 《중국고대윤리학》, 전명용 외 옮김, 이론과실천, 1990.
- 채인후, 《순자의 철학》, 천병돈 옮김, 예문서원, 2000.
- 김형진, <사회적 인간관에 기초한 순자 철학의 재조명>, 송영배·신정근 외 지음, 《제자백가의 다양한 철학흐름》, 사회평론, 2009. 264-301쪽.
- 성태용, <심성론: 예론과의 관련 아래서 본 순자의 수양론>, 《태동고전연구》 제5집, 태동고전연구소, 1989. 181-226쪽.
- 오상무, <인간에 대한 두 시각: 《순자》와 《장자》>, 《철학연구》 제36집,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08. 509-531쪽.
- 이장희, <순자 性惡說의 의미>, 《사회와 철학》 제9호, 사회와철학연구회, 2005.

211-238쪽.

이화중, <荀子の 欲望論>, 《中國學論叢》 제12집,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1999. 177-209쪽.

최진석, <육망: 선진(先秦) 철학을 읽는 또 하나의 창 - 직하학(稷下學)을 중심으로>, 이승환·이동철 엮음, 《중국철학》, 책세상, 2007. 325-351쪽.

황호식, <순자의 인성론에 담긴 사회철학적 의미>, 《범한철학》 제57집, 범한철학회, 2010. 111-135쪽.

Lau, D. C., "Theories of Human Nature in Mencius and Xunzi," ed. by T. C. Kline III and Philip J. Ivanhoe, *Virtue, Nature, and Moral Agency in the Xunzi*, Indianapolis, Indiana: Hackett Publishing Company, 2000. pp.188-219.

< ABSTRACT >

This essa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desires and social norms in Xunzi. It can be stated that Xunzi is one of the first philosophers to take human desires as his major issue and to build his theory in Chinese philosophy. Therefore, to explore Xunzi's philosophy of human desires is significant since we can have a sense of Eastern philosophies of human desires, especially, in Korean academic circles where Western theories of human desires are mainly on the table.

According to my study, Xunzi defines human beings as born with desires and social at the same time. Furthermore, he examines how human beings can achieve peace in a society. As a result, he suggests Confucian ritual norms as a social regulation to nurture human desires and to control human tendency to pursue their desires to the extreme, which can bring strife and disorder to the society. Only when human beings guide their desires in the right way of Confucian ritual norms are they able to lead harmonious lives with each other in the society.

Key Words: Xunzi, Human desires, Ritual norms, Nurturing desires, Controlling desires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0.6.30	2010.7.30	2010.8.6	2010.8.10	2010.8.31